

경북형 자치경찰제 발전안 모색 '머리 맞대'

도자경위·경찰청 소관 등 참여 '역량강화 워크숍' 포항서 개최

경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20일 '자치경찰위원회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과 사무국 직원과 경북경찰청 소관부서 경찰 공무원이 다 함께 참여해 경북형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에는 김순은 전 자치분권 위원장을 초빙해 '자치경찰제 출범의 의의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강연은 자치경찰제 도입 이유, 자치

경찰제 추진 경과, 법안 주요내용, 앞으로 발전과제, 질의응답 등 순으로 진행됐다.

특강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돼 자치경찰제 이원화의 추진 동력을 얻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자치경찰제 도입의 취지를 재확인하고 경북형 자치경찰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손순혁 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자치경찰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이 도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북형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